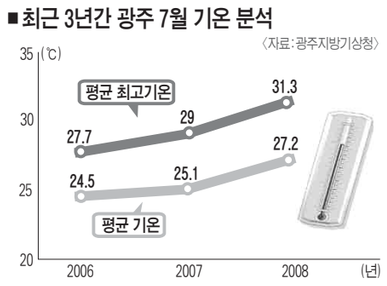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광주 7월 기온 분석



광주·전남이 뜨거워지고 있다

7월 평균 최고기온 3년새 4도 상승…열대야도 빨라지고 횟수 급증

광주·전남이 뜨거워지고 있다. 열대야 현상과 폭염특보 발령, 평균·최고기온 등 더위와 관련된 여러 기상 지표가 예년에 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여름 열대야 현상은 지난해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발생 횟수가 크게 늘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또 무더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폭염특보 횟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의 여름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

우선 광주지역의 7월 평균기온(1일 평균기온의 한달 평균치)과 평균 최고기온(1일 최고기온의 한달 평균치)이 최근 3년간에 비해 급격히 올랐다. 광주의 올 7월 평균기온은 27.2도. 지난해 평균기온 25.1도에 비해 2.1도, 2006년 24.7도에 비해서는 2.5도 상승했다. 또 올 7월 평균 최고기온은 31.3도로 ▲2007년 29.0도 ▲2006년 27.7도에 비해 최대 4도까지 올랐다.

지난 30년간 광주지역 7월 날씨를 분석한 평균기온(25.5도), 평균 최고기온(29.7도)과 올 7월 날씨를 비교했을 때는 올해가 1.7도, 1.6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들어 30일 현재까지 열대야가 발령된 것은 모두 13일. 이는 지난해 여름동안 발령된 총 열대야 발생 횟수 13회와 맞먹는 것이다. 1년중 가장 더운 8월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볼때 7월 광주지역의 이상 폭염현상은 심상치않다. 또 열대야 현상이 시작된 날짜도 지난해보다 급격히 빨라졌다.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 6일로 지난해 7월 25일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9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폭염특보도 마찬가지다.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모두 3번으로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 한 차례 늘었다. 폭염특보 시작일도 지난해(7월 26일)에 비해 17일이나 빨라졌다.

전남지역도 올해 폭염특보 발생 횟수는 5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2차례)보다 3차례 늘어났으며,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발효됐다. 특히 올해 광양, 나주, 화순, 순천에 폭염경보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유달리 더운 날씨를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열대야 현상의 시기와 횟수의 변화는 장마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 지난 28일 발령됐던 폭염특보는 30일 새벽 5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로 대치됐으며,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양·순천·함평 등 전남 3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담양·곡성·구례 등 전남 14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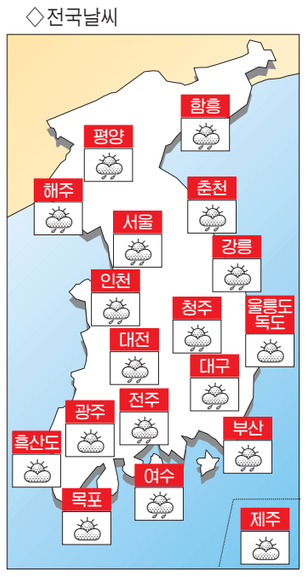
가는 7월, 오는 소나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7월 31일 (음 6월 29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5~34℃
목 포	구름 많음	24~32℃
여 수	소나기	25~31℃
완 도	구름 많음	25~33℃
구 례	소나기	23~34℃
해 남	구름 많음	24~33℃
장 흥	구름 많음	24~32℃
고 흥	소나기	24~33℃
순 천	소나기	23~34℃
영 광	구름 많음	24~33℃
진 도	구름 많음	26~34℃
전 주	소나기	25~34℃
남 원	소나기	24~34℃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01:12 13:06 썰물 06:41 18:36
여 수 밀물 08:05 20:47 썰물 02:14 14:10

▲해뜸 05:41 ▲해짐 19:36 ▲달뜸 03:50 ▲달짐 18: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 씨						
최저/최고	26/33	26/32	26/32	26/32	26/33	26/33

'장마 끝=무더위 시작' 옛말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계속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되던 등식은 이젠 옛말이 됐다.

기상청은 지난해까지 장마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모두 예보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장마가 끝난 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했다.

장마 시즌인 지난 6, 7월 두달 동안 광주지역에 내린 비는 411.8㎜. 지난해 같은 기간 284㎜에 비해서는 127.8㎜가 많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 평균치인 472.2㎜에 비해서는 60.4㎜가 적었고, 지난 2006년 강수량 571.3㎜에 비해서는 159.5㎜나 적게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동안에는 장마기간이 아닌 8~9월에 오히려 비가 더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8~9월 광주지역 강수량은 830㎜로 30년 평균치인 413.7㎜보다 무려 2배나 많았다. 특히 같은 해 6~7월 강수량(284㎜)에 비해서는 무려 546㎜가 더 온 것이다.

이처럼 불규칙한 강수량과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국지성 강우 등으로 기상청은 장마기간의 끝나는 시점을 예보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6월말~7월말 장마철'이란 전통적 등식이 깨진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상학적 의미의 장마전선이 소멸된 후인 8월에도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등 장마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데 대한 의미가 없어져 1개월 내지 3개월 예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장마전선 소멸 시점을 예측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

무농약 포도 수확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여름 햇살을 머금으며 영근 포도는 제철을 맞았다. 30일 낮 담양군 고서면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무농약 친환경 포도를 따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울대 자유전공 157명 선발

서울대가 내년에 개설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정원을 157명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16면〉

30일 서울대가 발표한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 모집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수시와 정시를 합쳐 모두 157명으로 정하고 이 중 110명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으로, 나머지 47명을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각각 선발한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93명(수시 65명, 정시 28명), 자연계열에서 64명(수시 45명, 정시 19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의학과 수의학, 사범계열, 간호학을 제외한 학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특기자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평가(100%)로 선발 인원의 2~3배수를 뽑은 뒤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50%)과 면접·구술고사(30%), 논술고사(20%) 점수를 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1단계는 인문계열과 동일하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50%)과 면접·구술고사(50%) 점수만으로 평가하며 논술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적용하지 않으며 예능 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한 수시 2학기 총 모집 정원은 특기자전형 1천77명과 지역균형선발전형 775명 등 모두 1천852명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광주 2만6천여명 노령연금 추가 혜택

광주지역 노인 2만6천여명이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돼 광주지역 수급 대상자가 올해 6만명에서 내년에는 8만6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2만6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부부는 현행 64만원 이하에서 108만8천원 이하로, 배우자 없는 노인은 현행 40만원 이하에서 68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출기준은 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금액만 계산하고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연리 5%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수령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목표를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8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직자 3만여명 주민번호 병무청 홈페이지서 노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3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채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프로그램 문제로 공직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나 응급 복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인터넷에 마련된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조회' 코너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3만1천여명의 병역이행 기록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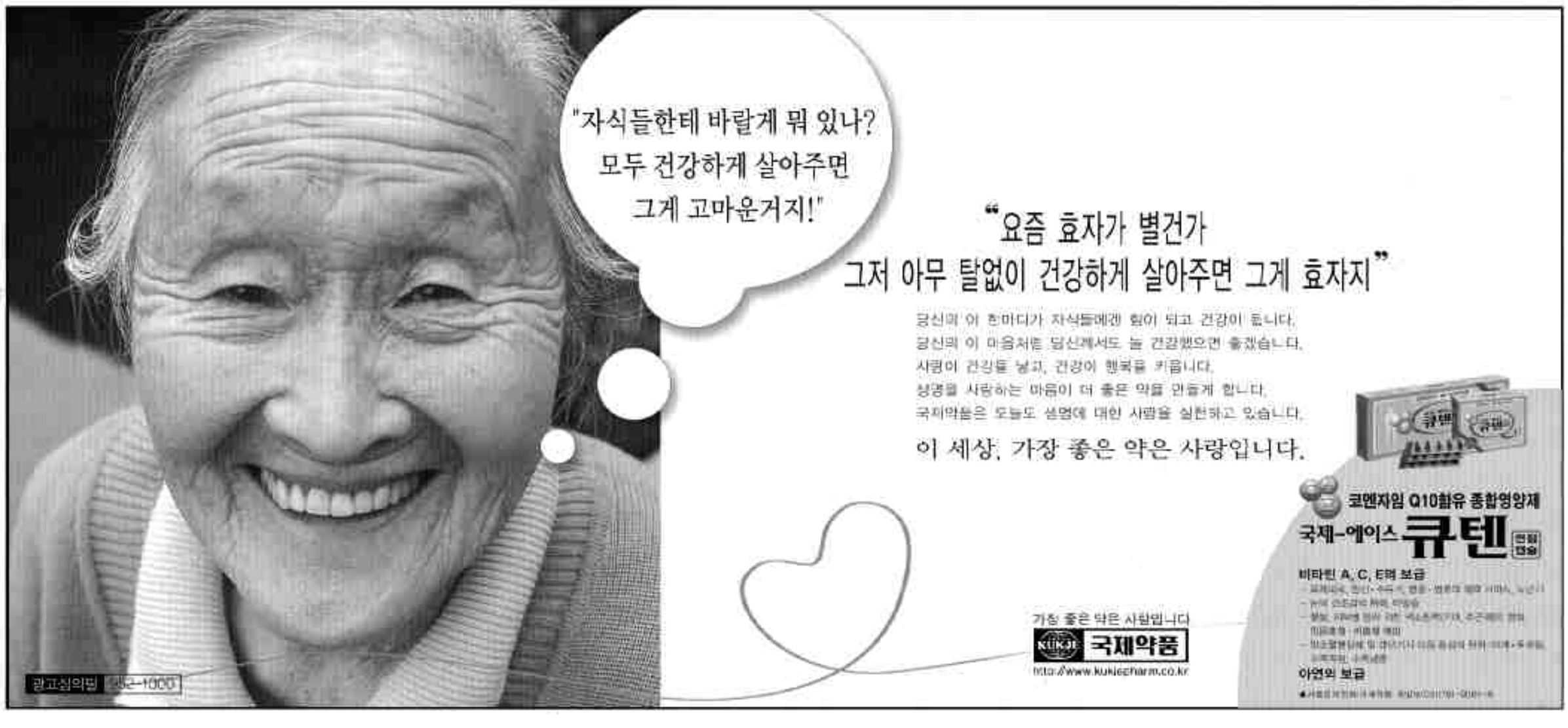
"방파제 관리 부실 여수시 손배 책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방파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보험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여수시는 보험금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승용차의 추락 가능성이 있는 방파제에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판 또는 방파제 끝 부분에 차량진입 방지턱이나 차단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추락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여수시는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3억3천여만원 중 9천9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계약자에 설명 안한 보험약관 효력 없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원인 남편이 교통사고 또는 일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 같은 약관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의 남편이 선박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에게 일시금 1천만원과 오는 2018년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